

인체표본 전시회와 시신활용의 윤리

박재현*

1. 들어가는 말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실물 인체표본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 동안 인체의 신비-한국 순회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립서울과학관에서 1년간 진행되었다. '인체의 신비전'은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의 '인체의 세계(Body Worlds)' 전시회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전시 기획사가 새롭게 붙인 인체표본 전시회의 명칭인데 이 전시회는 시작 5개월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유치하였고 1년간의 서울 전시회가 끝날 무렵에는 총 관람객이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서울 전시 이후에 이 전시회는 전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계속되었고 2007년 7월에는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인체의 신비전'은 전시기획 업체의 홍보 문구처럼 '생명의 소중함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전시회

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이라도 학생이 있는 가족은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교육적인 전시회로 간주되었다. 또 교육과 오락을 잘 접목한 성공적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시회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면 군터 폰 하겐스의 독일 원작 전시회가 아니라 다른 업체의 인체표본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군터 폰 하겐스의 전시회처럼 위장을 했다든지,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불법 증축된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다는 정도의 논란들이다.¹⁾ 물론 약간의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관람 후기 또는 감상문에서 비판하는 글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등장한 윤리적인 비판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²⁾

'인체의 신비전'의 의의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있었다. 인체 표본을 제작한 군터 폰 하겐스는 "해부학의 공포나 부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반인에게 건강이나 삶,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인체표본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³⁾ 군터 폰 하겐스의 독일 원작과는 다른 인체

*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교실. 02-961-9102. fool@khu.ac.kr

1) 연합뉴스. 2004. '인체의 신비-대구순회전' 원작과 혼동. 7월 8일; 연합뉴스. 2006. '울산 인체 신비전' 고발키로. 1월 10일.

2) 의협신문. 2002. 인체의 신비전? 인체 모독전? 12월 5일; 한겨레21. 2003. 시체 포육전 그만두라! 3월 14일; 한겨레신문. 2006. '황우석 사태' 윤리위반 무감각 반응 없이 이대로 계속 가는가. 5월 18일; 중도일보. 2007. 인간모독 '인체의 신비전'. 5월 15일.

3) 연합뉴스. 2002. 인체표본 제작자 하겐스 박사. 4월 17일.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표본 전시회를 기획한 한 업체는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약 200여 점의 해부표본들은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류적 관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였다.⁴⁾ 한 신문은 “이번 전시는 각 기관들의 실제 위치를 삼차원적으로 보여주며 인체 구성구석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인체의 생생한 지식과 생명의 고귀함을 전해 준다.”고 보도하였다.⁵⁾ 2007년의 ‘체험, 인체 신비전’의 기획사는 “기존의 어떤 과학 자료보다 완벽하게 재현된 인체 표본은 생생한 지식과 함께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⁶⁾

앞에서 보듯이 ‘인체의 신비전’에 대한 홍보와 신문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고귀함’, ‘인간의 존엄성’이다. 대중을 상대로 한 인체표본 전시회는 과연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의 비판처럼 ‘인체의 신비전’이 아니라 ‘인체의 모독전’, ‘인체의 상업화전’, ‘시체 포육(脯肉)⁷⁾전’인가?

시신 활용의 윤리는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 범죄수사나 공중보건 목적의 부검, 사후 인체 조직의 의학적 활용(치료와 연구), 인체표본 전시의 몇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⁸⁾ 이 영역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 문제가 있고 특정 영역에 고유한 윤리 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인체표본 전시의 윤리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를 하겠지만 시신 활용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시신 활용의 윤리는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신 활용은 현재는 심각한 윤리 논쟁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중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시신 또는 인체 조직을 활용한 치료와 연구가 증가하면서 시신 활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신 또는 시신의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와 유통에 대한 논란이 있고 사형수 등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시신 활용 등의 논란이 있었다.⁹⁾ 한 편으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더 많은 인체 조직이 필요한 데 시신의 기증이 부족하여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시신 기증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한다.¹⁰⁾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윤리적 비판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인체표본 전시회의 윤리 문제를 검토하여 시신 활용의 윤리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시신 전시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 문제를 야기하게 될 ‘사후 인체 장기/조직의 의학적 활용’에 대해 도출된 윤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¹¹⁾

II. 군터 폰 하겐스의 ‘인체의 세계 (Body Worlds)’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는 1978년에 중합체

4) 연합뉴스, 2004. ‘인체의 신비-대구 순회전’ 원작과 혼동, 7월 8일.

5) 한국경제, 2005. 26일부터 ‘2005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 - 어린이 대공원 전시관, 3월 24일.

6) 마이데일리, 2007. 400만 다녀간 ‘인체의 신비전’ 고별전, 13일 개막, 7월 10일.

7) 얇게 저며서 말린 고기 조각

8) 시신과 관련된 윤리 논란은 태아 조직의 활용과 재난 시의 시신의 수습이나 처리 등과 관련하여 등장하기도 한다. 태아조직의 활용은 사후 인체 조직의 활용과 맥을 같이 한다.

9) 세계일보, 2006. ‘미 장례식장 시신서 빼낸 장기 한·호주서 불법이식’, 6월 22일; 뉴스메이커, 2006. [월드리포트]사망자 두 번 죽이는 ‘엽기적 거래’, 3월 8일.

10) 조선일보, 2007. 지난해 사람 뼈·피부 등 수입액만 120억 원 ... 의존도 심각, 9월 20일.

11) 뇌사도 시각에 따라서 시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뇌사 상태의 인간은 산 사람이고 따라서 산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볼 수 있지만 뇌사를 죽음의 기준을 본다면 뇌사 상태의 인간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타인에게 이식하는 일은 시신의 의학적 활용이 된다. 그러나 뇌사와 장기 기증까지 포함하면 논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의 고전적인 죽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시신의 의학적 활용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重合體, polymer)를 사용하여 생체 조직을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미국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보존 방법은 플라스틱네이션(plastination) 기법¹²⁾으로 알려졌고 군터 폰 하겐스는 1993년에 이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전시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에 IfP(Institute for Plastination)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군터 폰 하겐스와 IfP는 플라스틱네이션으로 처리한 인체표본 전시회 즉, '인체의 세계(Body Worlds)' 전시회를 1995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 들였다. 군터 폰 하겐스의 인체표본 전시회의 성공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업체들도 대중을 상대로 시신 전시회를 열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체의 세계' 뿐 아니라 다양한 명칭의 인체 표본 전시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¹³⁾

'인체의 세계' 웹사이트(www.bodyworlds.com)에 의하면 군터 폰 하겐스의 인체 표본 전시회의 목적은 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 교육(health education)이다. 전시회의 주된 대상은 인체해부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며 전시 목적은 대중에게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장기와 질병이 있는 장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흡연자의 건강한 폐와 흡연자의 건강하지 못한 폐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시신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포즈로 전시하여 인체 내부의 장기 위치를 보여주고 기계화된 세상에서 취약하게 된 인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체의 세계' 전시회는 기획자가 목적으로

내세운 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은 IV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자주 거론되는 문제를 두 가지만 먼저 말하면 시신 전시의 방식과 시신 취득의 경로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다. 시신을 맡을 타고 있는 포즈로 말의 시체와 함께 전시하거나, 임산부 시신의 배를 갈라 자궁속의 태아를 드러내 같이 보여준다거나, 피부가 다 벗겨어진 시신이 자신의 피부를 마치 비옷처럼 들고 있는 식으로 전시하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또는 혐오감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의 사형수 시신이 전시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시신의 상업적인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의 세계' 전시회의 윤리 논란에 대해 군터 폰 하겐스는 시신 기증자의 동의(consent)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시신 기증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터 폰 하겐스는 2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시신 전시를 위한 시신 기증 프로그램(Body Donor Program)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7,600명의 사람들이 플라스틱네이션 프로그램을 위해 시신 기증 서약을 했고 그 시신 기증자의 90%는 독일인이라고 한다.

'인체의 세계' 전시회의 윤리 논란에 대한 다른 자료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과학센터(California Science Center)가 200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체의 세계'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작성한 문서¹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과학센터는 2004년 11월에 지역 윤리자문위원회(Local Ethics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인체표본 전시회의 윤리 논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과

12) 플라스틱네이션은 약품을 이용하여 시신에서 수분과 지방을 제거한 후에, 남은 부분들(근육, 신경 조직 등)을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로 치환하는 것이다. 플라스틱네이션으로 처리한 표본은 건조하고 냄새가 없으며, 단단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져볼 수도 있다.

13) 2002년 한국에서의 첫 인체표본 전시회가 '인체의 신비-한국순회전'의 명칭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의 시신 전시회는 '체현, 인체의 신비전', '체현, 인체신비 수원특별전', '인체의 신비 대구순회전', '미공개 인체 신비전',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 등과 같이 '신비'의 단어를 꼭 포함시키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에서는 'Body Worlds'의 고유 명사를 사용하거나 '인체 전시회(Human Body Exhibition)', '실제 인체의 해부 전시회(The Anatomical Exhibition of Real Human Bodies)'의 명칭으로 대부분 개최되고 있으며 드물게 '놀라운 인체 전시회(The Amazing Human Body Exhibition)'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14) Body Worlds: An Anatomical Exhibition of Real Human Bodies, Summary of Ethical Review. 2004/2005, http://www.bodyworlds.com/Downloads/ethics_summary.pdf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18호) : 2007년 12월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 위원회의 윤리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신 전시회는 상당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며 과학센터가 주관하기에 적절하다. 2) 시신 전시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실제 시신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포즈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방식 없이는 강력한 교육적인 경험은 불가능할 것이다. 3) 전시회는 유대-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전통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민감한 쟁점은 시신의 출처와 시신의 일상생활의 포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센터는 대중에게 알리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4) 시신은 과학, 건강과 의학교육의 맥락에서 전시되어야 하고 전시회는 기증자의 기증 의사와 기증자의 시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5) 전시회의 핵심 목표는 '인체의 세계' 전시회의 카탈로그에 잘 표현되어 있다 : "대중의 의학적인 계몽과 인식을 위해서(For the medical enlightenment and appreciation of lay people)". 그리고 위원회는 시신 기증 동의서 양식(Body Donor Form)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시신 기증 동의서와 사망 진단서를 검토했을 때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윤리 쟁점인 시신 기증자의 사생활(privacy)과 비밀의 보호(confidentiality)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윤리 쟁점인 불법적인 시신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추가로 13세 이하 아동 관람객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할 것, 시신 기증자에 대해 존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입구에 마련할 것, 관람객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군터 폰 하겐스와 캘리포니아 과학센터 윤리 자문위원회의 윤리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시신 기증 절차

의 윤리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증절차의 정당성은 설명 동의의 준수와 시신 취득의 합법적 경로를 의미한다. 둘째, 과학, 의학교육, 건강의 맥락에서 전시의 윤리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셋째, 시신 기증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말하고 있다.

III. 의학교육을 위한 사체 해부의 윤리

1. 시신의 취득 경로와 윤리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을 위해 시신을 활용하는 것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 되었고 수많은 윤리 논란과 법 제정을 거쳐 현재는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한 인체표본 전시회의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인체해부의 역사와 인체 해부에 대한 사회의 시각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동양과 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해부를 위한 시신의 취득 경로인데, 주로 극빈자, 사형수, 행려사망자, 적군의 시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16세기에 영국에서 사체 해부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¹⁵⁾ 교수대에서 처형을 사체 해부로 대체하거나 교수대에서 사형 이후에 추가의 형벌로 해부를 하는 방식이었다. 18세기 초에 학문으로서의 해부학이 시작되면서 범죄자의 시신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게 되자 영국의 해부학자들은 매년 수천구의 사체를 무덤 도굴꾼과의 거래를 통하여 확보하였다고 한다.

19세기 초가 되자 도굴꾼과 거래하여 사체를 취득하는 관행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영국 정부는 1829년에 첫 번째 해부법(First Anatomy Bill)을 만들어 무덤 도굴에 의한 시신 확보를 금지하고 병원이나 구빈원

15) Jones DG. The Human Cadaver: An assessment of the value we place on the dead body.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1995 : 47 : 43-51.

(救貧院) 환자의 시신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⁶⁾ 이 법은 시신 도둑질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흉악한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잠재적인 해부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1832년에 두 번째 해부법(Second Anatomy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자신의 육체의 사후 처리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은 무연고 시신(unclaimed bodies)'이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 해부용 시신의 출처라는 당시의 의사들의 지배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¹⁷⁾ 이 법의 통과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해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은 해부를 위한 시신 취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이 법의 통과 결과 법 제정 후 100여 년 동안 런던에서 해부된 시신 중에 가난한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구빈원이나 수용소에서 나오지 않은 시신이 0.5%도 안 되었다고 하며 1960년대가 되어서야 영국에서 시신 기증에 의한 해부가 70%를 넘어섰다.¹⁸⁾

우리나라에서 해부학은 서양의학의 역사와는 달리 체계적인 학문으로의 발달이 미미하였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적군의 시체를 해부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격적인 해부학 교육은 서양의학의 도입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일제강점기에 해부실습용 시체는 연고가 없는 행려병자 또는 사형수의 시체였으나 드물게는 기증자의 사체도 있었는데 기록상 볼 수 있는 최초의 시신 기증은 1929년에 있었다.²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해부학 실습에서 대부분 무연고자의 시신을 사용하였고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시신 기증이 활발

해지면서 비로소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기증에 의해 시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체 해부의 윤리적 정당성

해부학 실습을 위해 시신을 사용할 때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해부학 교육을 위해 사체 해부 실습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거나 대체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데 실제 인체의 해부를 대체할 수단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²¹⁾

둘째, 시신 사용의 이익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학의 발전과 질병의 치료라는 막연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시신의 활용으로 도움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인 의대생, 예비의사가 있다.

셋째, 당사자가 죽기 전에 시신 기증에 대한 명확한 동의 즉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해야 한다. 존스(Jones DG)는 지금은 죽었지만 과거 살았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생존했을 때 그 당사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직접 이끌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했다.²²⁾ 또 기증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신을 사용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사회와 그 사회의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16) 이 당시에는 병원에서의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 곧 사체 해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17) 이와는 반대로 현재는 '자신의 시신에 대해 특정한 요구를 남긴 시신(claimed body)'만이 해부를 위해 윤리적으로 적절한 시신이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

18) Jones DG. 앞의 글.

19) 여인석, 박형우, 정인혁. 우리나라 해부의 역사. 대한해부학회지 1992 ; 25 : 188-194.

20) 여인석, 박형우, 정인혁. 앞의 글.

21) 최근에는 의학교육에 있어 해부학 실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컴퓨터 영상 자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시물레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과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그룹으로 직접 해부(dissection)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교수 등의 전문가가 미리 해부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prosection이 교육 시간과 학생들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어 두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해부학 실습도 최소한 일정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2) Jones DG. 앞의 글.

넷째, 가족의 동의다.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에서 장례 절차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슬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들의 의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당사자의 시신 기증 의사가 없을 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신 기증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시신 기증 의사가 있을지라도 시신 기증을 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이런 취지는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시신이나 인체 조직의 관리와 관련된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³⁾ 그러나 가족의 동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조문도 있다.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의 맥락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동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기증 의사를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가족의 동의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²⁴⁾ 이는 이식용 장기의 확보에만 무게를 둔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런 발상이 시신의 활용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섯째, 순수한 기증이어야 한다. 금전 등의 보상이 제공되거나 상업적인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혈과 장기 기증의 역사에서 보듯이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기증은 말 그대로 '진정한 선물(genuine gift)' 이어야지 다른 대가나 상업적 이익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시신에 대한 존중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시신)의 가치를 굳이 비교하자면 죽은 사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산 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시신은 산 사람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사물에 불과한가 아니

면 '산 사람'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일까? 캠벨(Alastair Campbell)은 사체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한 인간과 그의 육체는 거의 분리하기 힘든 관계라는 점을 들고 있다.²⁵⁾ 한 인간의 정체(identity)를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의 육체로써 인식을 하게 되는데 죽음 후에도 이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신을 단순한 사물이나 심하게는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복규는 시신에 대한 존중 이유에 대해 "인간의 사체는 단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사체가 되기 이전까지 그 사회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행했던 중요한 가치들이 마지막으로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지 죽음이라는 표시만으로 인간의 사체를 단순한 사물로 환원시키는 것은 인간의 문명에서 최후로 지키려는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한 학대다."라고 말한다.²⁶⁾

일곱째, 기증자와 가족의 비밀 보장이다. 권복규는 사체조직이식에 있어서 기증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동의로부터 조직 채취/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시신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고 기증자의 미덕을 기리려는 목적이 있다 해도 실명을 명시하여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원칙은 해부학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IV. 인체표본 전시에 대한 윤리적 비판

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실습에서 도출되고 합의된 윤리 원칙을 정리하면 1) 대체 수단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

23) 우리나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직의 채취요건) 1항 제1호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등의 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인)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25) Campbell A, Gillet G, and Jones DG. Practical 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주 15) Jones DG. 앞의 글에서 재인용.

26) 권복규. 사체조직이식의 윤리적 문제점. 생명윤리 2004 ; 5 : 27-37.

2) 시신 활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 3) 당사자와 가족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4)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의사의 존중과 상업성의 배제, 5) 시신에 대한 존중, 6) 기증자와 가족의 사생활/비밀 보장인데, 이 원칙들을 인체표본 전시회에 적용하여 윤리성을 검토해보자.

1. 대체 수단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

대체수단의 유무 쟁점은 해부학 사체 실습 뿐 아니라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의 인체 모형 더미(dummy)의 활용에서도 볼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충돌 시험에 실제 시신을 활용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며 더미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시신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윤리적 정당성에서 논란이 적은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서조차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체 해부 실습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시신의 활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수단이 충분히 가능한 대중의 건강교육을 빌미로 시신을 전시하는 일은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

인체표본 전시회의 목적으로 대중의 건강에 대한 교육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데 실물 시신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한 현직 의사는 아인슈타인의 뇌 전시²⁷⁾에 대해서 “의대생 시절 해부를 직접 하고, 해부학을 12-20학점 가까이 공부하였지만, 다른 동물의 뇌를 가져다 놓고, 사람의 뇌라 해도 외관만 보고서는 구별할 자신이 없는 의사로서, 교육적 효과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교육적 효과관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²⁸⁾ 인체표본 전시회가 유치원생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적 효과를 미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단체로 시신 전시회를 관람하는 일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을 말하기 힘들다.²⁹⁾ 막연하게 건강 교육, 생명의 고귀함과 인체의 아름다움, 인체의 신비를 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이 없다.

3. 시신 기증에 대한 동의

시신 기증에 있어 설명 동의가 유일한 윤리 원칙은 아니지만 동의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윤리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기증자의 동의를 잘 받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비판을 잠재울 수는 없다. 또 동의의 내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신 기증자가 과연 자신의 몸이 사후에 백화점 옥상이나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에 전시되는 것을 알고도 시신 기증에 동의했을까? 공룡 화석과 함께 전시되거나 말을 탄 모습으로 말의 시체와 함께 전시될 것을 알고도 시신 기증에 동의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인체 표본 전시회에 사용되는 시신에 대한 기증자의 사전 동의 문제는 군터 폰 하겐스의 ‘인체의 세계’ 전시회뿐 아니라 여러 인체표본 전시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1월 독일의 슈피겔지(Der Spiegel)는 군터 폰 하겐스가 중국의 사형수의 시신을 인체표본 전시회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³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존중되는 최우선의 가치인데, 시신 기증자의 동의에 대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27) 동아일보. 2002. 아인슈타인의 뇌 일부 세계 최초로 국내전시. 11월 4일.

28) 의협신문. 2002. 인체의 신비전? 인체 모독전? 12월 5일.

29) 세계일보. 2007. ‘웃찾사’, 인체의 신비전에서 아이디어 재충전. 8월 8일.

30)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Gunther_von_Hagens; 중도일보. 2007. 인간모독 ‘인체의 신비전’. 5월 15일.

4.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의사를 기리기 위한 장치들과 상업성의 배제

시신 활용에 있어서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장치들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의 윤리자문위원회는 군터 폰 하겐스의 '인체의 세계' 전시를 하며 제시한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인체표본은 과학, 건강과 의학교육의 맥락에서 전시되어야 하고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³¹⁾ 그러나 의과대학이나 과학관이 아니라 백화점 옥상이나 놀이공원에,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 시신이 공룡 화석과 함께 전시되는 현실은 과학, 건강과 의학교육의 맥락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현실에서 시신 기증자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³²⁾

'인체의 세계' 세계 순회전의 수익은 플라스틱네이션 연구와 다음세대에 물려줄 인류박물관(Museum of Man) 건립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군터 폰 하겐스와 시신의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 Iff가 최소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체표본 전시회를 그저 흥행이 잘 되는 전시회의 하나로 간주하는 전시기획 업체에게 시신의 전시가 좋은 돈벌이가 됨은 분명하다. 상업적인 이익은 아주 위험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업화된 전시회의 단면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시회 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의 할인 행사나 공룡박람회와의 동시 개최는 관객의 숫자를 늘리려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유치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서의 전시 또한 상업적인 이해와의 지나친 결탁을 의미한다.³³⁾

5. 시신에 대한 존중/사물화의 방지

아무리 물질 위주의 시대라 해도 시신을 '한 때는 살아 있던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사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사물화의 방지에 대해 권복규는 "인간의 피부나 지방이라고 해서 다른 동물의 그것과 물리화학적 성상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오로지 그것이 한 때 '인간의' 일부였다는 점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³⁴⁾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런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시신을 존중하지 않는 점은 전시 방식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 시신의 배를 가르고 태아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어 함께 전시하는 일은 시신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사물화의 증거는 언론 기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군터 폰 하겐스의 전시가 아닌 중국 디엠유피 연구소의 인체 표본을 전시한 한 기획사의 홍보 담당자는 "중국 측의 전시품들도 교육적인 차원이나 품질 면에서 독일 원작 전시회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³⁵⁾ 결국 인체표본 전시회의 시신들은 완벽하게 사물화되었다.

6. 비밀 보호

군터 폰 하겐스는 부인하였지만 2004년 2월 독일의 한 언론(Suddeutsche Zeitung)의 보도는 기증자의 비밀 보호 논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군터 폰 하겐스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2m 39cm) 사람의 하나이며 온갖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과거 소련의 농구 선수 알렉산더 시조넨코(Alexander Sizonenko)에게 사후 시신 기증을 약속하면 일회적으

31) Body Worlds: An Anatomical Exhibition of Real Human Bodies, Summary of Ethical Review, 2004/2005 : http://www.bodyworlds.com/Downloads/ethics_summary.pdf

32) 서울경제, 2005. 에버랜드, 미공개 인체신비전. 5월 12일.; 서울경제, 2007. "인체신비, 공룡전 함께 보세요" 대전시 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서 전시. 5월 15일

33) 머니투데이, 2006. 비씨카드, 인체 신비 특별전에 아동 무료 초청. 비씨카드 결제시 입장료 5%, 단체관람시 10% 할인도. 6월 26일.; 서울경제, 2007. "인체신비, 공룡전 함께 보세요" 대전시 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서 전시. 5월 15일.

34) 주 25) 앞의 글.

35) 연합뉴스, 2004. '인체의 신비-대구 순회전' 원작과 혼동. 7월 8일.

로는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³⁶⁾ 만약 이 제안이 성사된다면 알렉산더 시조넨코는 시신이 되어 전 세계에 노출이 되는 셈이다.

V. 맺는 말

군터 폰 하겐스와 다른 인체표본 전시 기획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교육'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인체표본 전시회에 대해 칭송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전시회의 흥행 성공과 대중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실물 인체의 전시에는 심각한 윤리 문제가 있다.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서 시신을 활용할 때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윤리 원칙들은 1) 대체 수단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 2) 시신 활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 3) 당사자와 가족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4)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의사의 존중과 상업성의 배제, 5) 시신에 대한 존중, 6) 기증자와 가족의 사생활/비밀 보장인데 이 원칙들은 인체표본 전시를 위한 시신의 활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인체표본 전시회는 대체 수단이 충분히 가능하며, 시신 활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1)과 2)를 위반하고 있다. 또 기증자의 동의는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요건은 불충분할 수 있다. 즉 시신 전시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시신이 괴이한 방식으로 전시된다거나 의학 또는 과학의 맥락을 벗어나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신 확보 경로의 의혹을 볼 때 3)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시 방식이나 장소, 상업적 이해의 개입, 시신의 사물화 등은 4)와 5)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에 대해서는 의혹 차원이

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리하면 4), 5), 6) 원칙의 위반은 전시회 기획과 시행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3)의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시신의 처리와 전시 방식에 대한 내용적인 동의를 강화하여 지킬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나 1)과 2) 원칙의 위반은 전시회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기획을 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인체표본 전시회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체표본 전시회의 윤리 문제는 치료와 의학/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시신과 인체조직의 활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인체 표본 전시회는 대중의 건강 교육이라는 막연한 목표 때문에 치열한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와 연구를 위한 시신과 인체 조직의 활용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인류를 위한 의학/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힘든 목표가 있다.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의학은 결과 위주의 가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의학에서는 생명을 구한다는 명제가 워낙 강력하여 다른 가치들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경향은 뇌사자의 장기 이식 논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장기 기증자는 턱 없이 부족해서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뇌사자나 시신의 활용에 대해 번거로워 보이는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논란을 위한 논란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시신을 산 사람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물이 아니고 한 때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녔던 존재로서 '산 사람'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시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윤리 원칙들을 적용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인체의 세계, 인체표본, 전시회, 윤리원칙

36)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Gunther_von_Hagen

Ethical Issues in the Public Exhibitions of Human Cadavers in Korea

PARK Jae-Hyun*

In 2002, an exhibition of human cadavers entitled "Body Worlds" was staged in Korea. Since then a number of similar exhibitions have been held across the country, drawing a total of more than four million visitors. These exhibitions, which display plastinated human cadavers in various poses, have been widely regarded as having scientific and educational value, teaching people about human life and health.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ublic debate or discussion of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exhibition of human cadavers. This article explains that the ethical principles governing cadaver use for medical education are as follows: 1) there should be no viable alternative to human cadavers for this purpose; 2) there should be concrete and explicit benefits from the use of cadavers; 3)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4) the cadavers should be respected and not be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and 5) privacy and confidentiality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as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e public exhibitions of human cadavers mentioned above violate several of these ethical principles: there are alternatives to the use of human cadavers for the purposes of health education, no explicit and concrete benefits were gained by using these human cadavers, the commercial dimension of the exhibi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dead body, and it is doubtful that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eople whose bodies were on display in these exhibitions. Thu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exhibitions of human cadavers in Korea were unethical.

○ **Keywords:** Body worlds, Human cadaver, Exhibition, Ethical principle

*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